

연세지역 아파트 주민의 모자보건에 관한 실태조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柳承欽 · 丁英淑 · 李京子 · 金光鍾

—Abstract—

A Study of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Relative to Maternal and Child Health Among Women Residing in Apartments at Yonsei Community Health Area

Seung Hum Yu, Young Sook Chung, Kyung Ja Lee, Kwang Jong Kim

Department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Graduate School

A study of the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s about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of 305 married women residing in apartments at the Yonsei Community Health area was conducted during the period from November to December 1970 using designed questionnaire with well trained interviewers. The results and findings obtained from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A. Pregnancy and Birth

Questions were asked about their last child.

1. 16.4% of the women were pregnant.

2. Among 281 women who had experienced delivery, 48.0% were assisted by doctor or midwives for their last delivery, while the rest of women delivered their last baby at home without any professional's assistance. The higher the level of education or the greater exposure to mass communication, the more the deliveries were assisted by doctors or midwives. Those women who were born and raised in cities had more deliveries assisted by doctors and midwives than those who were not.

3. Kinds of delivery sheets used.

Among 141 cases of home delivery 68% used cement bag paper or vinyl sheets. Three% used nothing and remained used unsterile materials.

4. Among 141 cases of home delivery, 70.2% used scissors. The rest of them used other methods.

5. 47.3% of the women had a rest for one month or more after birth. The higher the level of education, the longer the period of rest was observed.

6. 52.4% of the women fed the colostrum to their babies. This was not related to the mother's education.

7. About half(42.9%) of the women had poor knowledge about a proper diet for the pre and post natal period.

B. Child Health

1. Knowledge and practice regarding to the immunization for their children: Most of the women (93.2%) could name at least one kind of immunization. 20.3% could name 6 kinds of immunization.

Mothers education level did not influence their ability to name immunizations. 85.2% of children had been immunized at least once.

2. Morbidity of last born children: 48.1% of their last born children were found to have been sick during the last year. Less than half(41.5%) of the sick children were seen by doctor.

3. Counselling at well baby clinic: Most of the women(76.5%) had no counselling for their children. Registration rate at the well baby clinic at the Severance Hospital was 13.2%. 45.9% wanted to visit to the well baby clinic at the Severance Hospital.

4. Weaning Period: 44.6% said that the beginning of the weaning for their last born children was from 6 months to twelve months of age. The most important reason of weaning was the health of both mothers and children.

5. Knowledge and Practice regarding birth and death Registration: 64.6% of the women could name correctly the Ku-office as the place for the registration. Only 29.2% registered the birth of their last born children within 14 days.

C. Knowledge, Attitude and Practice regarding to family planning Most: of the women accepted the idea of family planning. 97.7% could name at least one contraceptive method. 35.4% were found to be current users of contraceptive methods. The ideal number of children was 3.1 in average.

I. 서 론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모자보건은 보건사업중에서 기본적인 사업의 하나이며 경제발전에 있어서도 모자보건의 차지하는 비중도 지대한 것이라 하겠다.

전 인구의 2/3이상을 차지하는 어머니와 영유아 및 아동들의 철저한 건강관리가 되어져야 국토개발과 조국의 근대화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우리 정부에서 계속 추진중인 모자보건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는 현 모자보건 실태를 조사함이 적극 요망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모자보건에 관한 실태조사가 몇몇 보고¹⁾²⁾되었으나 아파트주민의 모자보건 실태조사의 연구는 매우 드물다.

본 조사에서 연세지역에 있는 아파트주민의 모자보건실태를 조사하여 모자보건사업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나아가서 국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조사하였다.

1) 교육정도와 생활정도에 의한 모자보건에 대한 지식 및 태도

2) 어머니들의 임신, 분만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

3) 육아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

4) 가족계획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실천

5) 출생 및 사망신고에 대한 지식 및 실천

6) 부부의 직업에 따른 모자보건에 대한 지식 및 태도

7) 매스컴이 모자보건에 미치는 영향 등.

II. 조사 방법

1970년 11월 20일 현재 연세지역(연희, 창천, 대신

동)안에 있는 연희 시민 아파트와 연희(중산층)아파트를 조사지역으로 선택하였고, 이 대상지역에 사는 15~49세의 유배우 가입 부인 34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중 여행 혹은 부재가 20명, 병중 또는 임원이 6명, 거절 5명, 기타 8명으로 39명이 면접 불가능하였고, 면접이 가능한 305명에 대한 응답내용을 종합분석 하였다.

아파트별 조사대상자는 아래와 같다. (표 1 참조)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재학생 여자 2명과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4학년 5명, 합계 7명의 조사원을 사용하였다. 이들은 면접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써 하룻동안 교육으로 충분 하였다.

질문지 초안을 가지고 조사원에게 교육을 실시한 후, 1970년 11월 13일부터 이틀간 창천아파트와 연희아파트에서 50명을 상대로 사전 조사를 하여 몇 항목의 수정이 불가피함이 발견 되었다.

위의 내용 중에서 영유아에 관한 사항은 현재 막내아이에 국한했다.

표 1. 아파트 별 조사 대상자

아 파 트	조사대상자 (명)	%
연희 중산층 아파트	61	20.0
연희 시민 A 아파트	129	42.3
연희 시민 B 아파트	115	37.7
합 계	305명	100.0

Ⅲ.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연령 분포

25~34세가 63.0%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35~44세의 27.5%였다. (표 2)

표 2. 연 령 분 포

연 령(세)	수(명)	백 분 륜(%)
20~24	19	6.2
25~29	89	29.2
30~34	103	33.8
35~39	50	16.4
40~44	34	11.1
45~49	10	3.3
합 계	305	100.0

2. 교육정도

국민학교 졸업이 28.2%로 제일 많았고, 중, 고, 대학 졸업도 각각 20%를 넘었다. (표 3)

표 3. 교 육 정 도

교 육 수 준	수(명)	백분율(%)
문 맹	7	2.3
국 문 해 득	14	4.6
국 민 학 교	86	28.2
중 학 교	65	21.3
고 등 학 교	65	21.3
대 학 교	68	22.3
합 계	305	100.0

3. 남편의 직업

무직 7.2%를 제외하고는 직업인이며 사무직이 23.0%로 제일 많았다. (표 4)

4. 부인의 출생지

도별로 출생지를 보면 서울이 21.6%로 제일 많고,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가 똑같이 16.7%로 둘째로 많았다. (표 5)

표 4. 남편의 직업

직업	수(명)	백분률(%)
전문적, 기술적 직업 종사자	43	14.1
관리적 직업 종사자	36	11.8
사무 종사자	70	23.0
판매 종사자	45	14.7
농림, 수산업 및 유사 직업 종사자	1	0.3
광부, 채석부 및 유사 직업 종사자	—	—
교통 및 체신업 종사자	18	5.9
기능공, 생산공정 종사자 및 기타 단순 노무자	46	15.1
서비스 직업 종사자	20	6.6
분류 불능의 직업	—	—
불 명	4	1.3
무 직	22	7.2
합 계	305	100.0

표 5. 출 생 지

출 생 지	수(명)	백분률(%)
서울	66	21.7
경기	51	16.7
충청	51	16.7
경상	51	16.7
전라	44	14.4
강원	4	1.3
제주	1	0.3
이북	26	8.6
의국	11	3.6
합 계	305	100.0

5. 월 총수입

3만원 미만의 수입이 63.0%이며, 남편의 직업과 결부시켜보면 대개 사무직 등의 봉급 생활자로 사료된다. (표 6)

6. 부인의 단체 가입

부인들에게 사회단체나 문화단체등에 가입여부를 물

표 6. 월 총 수입

수입	수(명)	백분율(%)
2만원 미만	89	29.2
2만원 ~	103	33.8
3 " ~	69	22.6
5 " ~	28	9.2
7 " ~	12	3.9
10 " ~	2	0.7
15만원 이상	2	0.6
합 계	305	100.0

이른 결과 64.9%가 아무데도 가입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4.9%는 두군데 이상 참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표 7)

표 7. 부인의 단체 참여

단체	수(명)	백분율(%)
없음	198	64.9
교회	39	12.8
동창회	24	7.9
계	24	7.9
자모회	0	0
2군데	15	4.9
기타	5	1.6
합 계	305	100.0

7. 매스 미디어 접촉 정도

어느 정도 매스컴에 접촉하는지를 알려고 신문, 잡지,

표 8. 매스 미디어 접촉 정도

점수	신 문 (%)	라 디 오 (%)	잡 지 (%)	테 레 비 (%)
0	전혀 안본다. 28.8	전혀 안듣는다. 7.5	전혀 안본다. 25.9	전혀 안본다. 47.9
1	거의 안본다. 4.3	거의 안듣는다. 6.6	거의 안본다. 16.1	거의 안본다. 17.0
2	일주일에 한번 본다. 1.3	며칠마다 한번 4.3	반년에 1권 1.3	며칠마다 한번 1.6
3	2~3일에 한번 본다. 4.3	하루에 한번 12.8	2~3달에 1권 14.4	하루에 한번 8.9
4	매일 본다. 61.3	하루에 몇번 68.8	1달에 1권이상 42.3	하루에 몇번 24.6
	100.0	100.0	100.0	100.0

라디오, 텔레비전 어느정도 보고 듣고 읽는지 알아보았다. 신문을 매일 읽는 사람은 61.3%, 라디오를 듣는 사람이 68.8%, 잡지를 한달에 1권이상 보는 사람이 42.3%, 텔레비전 보는 사람이 24.6%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매스 미디어 점수를 계산하였다. 즉 전혀 안 보거나 안듣는 경우를 각각 0점, 매일 구독하거나 하루에 몇번, 1달에 1권이상 보는 경우를 4점으로 하여 0~16점까지로 정하였다. (표 8)

위의 점수를 5으로 구분하여 본 결과 9점 이상이 62.6%였다. (표 9)

표 9. 매스 미디어 점수의 구분

점 수(점)	수(명)	백분율(%)
0	8	2.6
1 ~ 4	52	17.0
5 ~ 8	54	17.7
9 ~12	108	35.4
13 ~16	83	27.2
합 계	305	99.9

IV. 결 과

A. 임신과 출산

1. 현 임신을

16.4%가 현재 임신하고 있었으며, 불확실한 경우가 1.3%, 비임신이 82.3%이다.

2. 분만 장소

305명의 대상자 중 출산 경험이 있는 281명에 대하여 막내아기의 출산에 관해서 알아 보았다. 135명(48.0%)이 병원 또는 조산원에서 분만되었으며, 146명(52.0%)이 가정 분만이였다.

부인의 교육정도와 분만 장소를 비교하면, 교육 수준

표 10.

교육 정도에 따른 분만 장소

교육 정도	병의원 조산원	자 기 집	시 집	친 정 집	기 타	합 계
문 맹	—	7명(100.0%)	—	—	—	7명(100.0%)
국 문 해 득	2명(14.3%)	11 (78.6)	—	—	1명(7.1%)	14 (100.0)
국 민 학 교	11 (13.1)	71 (84.5)	1명(1.2%)	1명(1.2%)	—	84 (100.0)
중 학 교	26 (43.3)	32 (53.3)	1 (1.7)	1 (1.7)	—	60 (100.0)
고 등 학 교	44 (72.1)	11 (18.0)	2 (3.3)	3 (4.9)	1 (1.6)	61 (100.0)
대 학 교	52 (94.5)	3 (5.5)	—	—	—	55 (100.0)
합 계	135	135	4	5	2	281

표 11.

출생 성장지에 따른 분만장소

출생 성장지	병의원 혹은 조산원	시 집	친 정 집	자 기 집	기 타	합 계
도시 출생 도시성장	91명(65.4%)	1명(0.8%)	2명(1.4%)	44명(31.6%)	1명(0.8%)	139명(100%)
농촌 출생 도시성장	18 (62.1)	1 (3.4)	—	10 (34.5)	—	29 (100)
도시 출생 농촌성장	1 (22.3)	—	—	2 (66.7)	—	3 (100)
농촌 출생 농촌성장	25 (22.7)	2 (1.8)	3 (2.8)	79 (71.8)	1 (0.9)	110 (100)
합 계	135	4	5	135	2	281

표 12.

매스 미디어 접촉 점수에 따른 분만 장소

점 수	병의원 조산원	자 기 집	시 집 친 정 집	기 타	합 계
0 점	1명(14.2%)	6명(85.8%)	—	—	7명(100.0%)
1 ~ 4 점	10 (20.4)	38 (77.5)	1명(2.1%)	—	49 (100.0)
5 ~ 8 점	13 (24.5)	38 (71.7)	1 (1.9)	1명(1.9%)	53 (100.0)
9 ~ 12 "	61 (59.8)	35 (34.4)	5 (4.8)	1 (1.0)	102 (100.0)
13 ~ 16 "	50 (71.4)	18 (25.8)	2 (2.8)	—	70 (100.0)
합 계	135	135	9	2	281

이 높을수록 가정분만이 감소하고 있다.(표 10)

한편 부인의 출생, 성장지와 분만장소를 살펴 보면 281명 중 도시에서 출생하여 도시에서 성장한 부인은 65.4%가 병의원 또는 조산원에서 분만하였고, 농촌출생 농촌성장은 22.7%가 병의원 또는 조산원에서 분만하였다.(표 11)

매스 미디어에 접촉한 점수별로 분만장소를 보면, 점수가 높을수록 병의원, 조산원에서 분만하는율이 높다.(표 12)

3. 분만시 방포(깔대) 사용 종류

가정 분만을 한 141예중, 분만시 바닥에 까는 재료에 대해 물은 결과, 세멘트 포대(양회 종이)와 비닐을 깐 경우가 합해서 50.0% 되었다. 아무것도 깔지 않고 분만하는 경우도 4예가 있었다.(표 13)

4. 분만 개조인

“누가 막내아기를 받았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표 13. 분만시 방포의 사용종류

종 류	수(명)	백분율(%)
깔지 않았음	4	2.7
짚 또는 가마니	2	1.3
비 닐	26	18.1
양회 종이	41	28.5
비닐과 양회종이	31	21.5
담 요	2	1.4
기 타	28	21.7
모르겠음	7	4.8
합 계	141	100.0

표 14.

교육 정도에 따른 분만 개조인

교육 정도	도운 사람 없다	의사	조사원	시집 또는 친정	이웃 또는 친척	기타	합계
문맹, 국문 해득	1명(4.8%)	4명(19.0%)	6명(28.6%)	3명(14.3%)	4명(19.0%)	3명(14.3%)	21명(100.0%)
국 중	6 (4.2)	36 (24.2)	32 (23.3)	40 (28.2)	14 (9.7)	16 (10.4)	144 (100.0)
고 대	2 (1.7)	88 (75.8)	19 (16.3)	5 (4.4)	1 (0.9)	1 (0.9)	116 (100.0)
합계	9	128	57	48	19	20	281

표 15.

교육 정도별 산후 휴식 기간

교육 정도	일주일미만	1주일~2주미만	1달 이상	지금 쉬고 있다	합계
문맹	2명(28.5%)	5명(71.5%)	—	—	7명(100.0)
국문해득	5 (35.7)	7 (50.1)	2명(14.2%)	—	14 (100.0)
국민학교	25 (29.8)	34 (40.4)	25 (29.8)	—	84 (100.0)
중학교	10 (16.7)	22 (36.7)	28 (46.6)	—	60 (100.0)
고등학교	2 (3.3)	19 (31.2)	39 (63.9)	1명 (1.6%)	61 (100.0)
대학교	—	15 (27.2)	39 (70.9)	1 (1.9)	55 (100.0)
합계	44	102	133	2	281

의사가 개조했다는 경우가 128명(45.6%)로서 제일 많고, 조산원이 그 다음으로 57명(23.3%), 시어머니나 친정어머니가 48명(17.1%), 혼자 분만하는 경우가 9명(3.2%)이었다. (표 14)

한편 부인의 교육정도와 비교하면,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경우는 92.1%가 의사나 조산원에 의하여 개조되었음을 알수 있다.

5. 제대 절단 용구와 소독

병의원, 조산원에서의 분만을 제외한 141에 중에서 99명(70.2%)이 가위를 사용했고 낫 1명, 칼 3명, 기타가 20명, 모르겠다 사람이 18명이었다.

제대 절단 기구를 어떻게 사용했느냐는 질문에 소독(끓이거나 또는 소독약으로)을 해서 사용한 것은 34명(24.1%)에 불과했다.

6. 산후 휴식기간

산후 1달 혹은 1달이상 휴식한 예가 133명(47.3%)으로 제일 많고 1~2주일이 102명(36.3%), 일주 미만이 44명(15.7%)이다.

산후 휴식기간은 교육정도가 높아감에 따라 길어지고 있다. 대학 출신은 70.9%가 1달이상 쉬고 있으며, 고등학교 수준도 63.9%가 1달이상 쉬고 있다. (표 15)

7. 초유 처리

초유(初乳)를 아기에게 먹었는지를 물어보았다. 127명이 아기에게 먹었으며, 148명이 짜버렸거나, 처음부터 모유를 먹이지 않았었다.

초유의 처리는 교육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

표 16.

교육 정도별 초유처리법

교육정도	짜버렸다.		아기에게 먹었다	모르겠다	합계
	처음부터 유안먹었다	명 %			
문맹	명	%	명 %	—	명 %
국문해득	10(47.6)		11(52.4)		21(100.0)
국 중	83(57.0)		57(39.5)	4(3.5)	144(100.0)
고 대	55(42.4)		59(55.7)	2(1.9)	116(100.0)
합계	148		127	6	281

다. (표 16)

8. 산전 산후의 금기 음식

총응답자 305명 중에서 131명(42.9%)이 산전 산후에 먹어서는 안될 음식이 있다는 그릇된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런 금기 음식이 없다고 한 사람은 165명(54.9%)이었으며 모른다고 한 사람이 9명(3.2%)이었다.

B. 아동 보건

1. 예방접종에 관한 지식

305명의 대상 부인에게 DPT, 소아마비, 홍역, BCG 예방주사등 6가지에 대해 물어보았다. 21명(6.8%)을 제외하고는 1가지 이상을 알고 있었고, 모두 다 알고 있는 부인은 불과 62명(20.3%)이었다. (표 17)

2. 예방접종 정도

아기를 낳은 281명중에서 아직 예방주사를 맞칠 때가 안된 10명을 제외한 271명에게 예방접종 한 정도에 대해서 물었다. 1가지 이상 실시한 경우가 85.2%이며,

표 17. 예방 접종 종류에 관한 지식

알고 있는 예방 접종 종류수	수(명)	백분율(%)
모 른 다	21	6.8
1 가 지	24	7.9
2	37	12.1
3	54	17.7
4	66	21.6
5	41	13.4
6	62	20.5
합 계	305	100.0

표 18. 예방 접종 실천 정도

교육정도	실시안함	실 시 함	합 계
문 국 고	2명 (9.5%)	19명 (90.5%)	21명 (100.0%)
중	31 (22.0)	110 (78.0)	141 (100.0)
대	7 (6.4)	102 (93.6)	109 (100.0)
합 계	40	231	271

한번도 예방접종을 안한 경우가 14.8%였다.

이것을 교육정도 별로 살펴보았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표 18)

3. 막내아들의 이환과 치료

281명의 대상자 중, 막내아기가 올해에 아픈적이 있는가를 물었더니, 135명(48.1%)이 아픈 일이 있었다고 했다.

아플 때에 제일 먼저 어떻게 했는지 물었다. 병원 이용이 41.5%, 약국이 29.6%, 약국에 갔다가 낫지 않으면 병원에 가는 경우가 22.3%였다.

4. 육아 상담

막내아기가 아프지 않을 때 병원이나 보건소에 가서 상담한 일이 있는지를 물었다. 281명 중에서 215명(76.5%)은 상담한 일이 없다고 했고, 정기적으로 상담한 부인이 42명(14.9%), 불규칙적으로 상담을 한 부인이 24명(8.6%)이었다.

한편 연세지역의 영유아를 위해 실시되고 있는 세브란스병원 육아지도회를 어느 정도 이용하는 지 물었더니 37명(13.2%)만이 이용하고 있었다.

세브란스 육아지도회를 이용하지 않는 244명의 부인에게 “세브란스병원 육아지도회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육아상담과 영양지도, 예방접종을 해드리는 곳입니다”라고 설명한 후 “아기를 위해 육아지도회를 이용할 생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44.3%에 해당되는 108명이 이용할 생각이 있다고 하며 54.1%는 생각이 없다고 했다. 모르겠다고 하는 부인도 4명 있었다.

4. 수유기간(이유기)

281명의 대상자중 현재 수유중인 예와 처음부터 모유를 먹이지 않은 예는 제외하고 165명의 부인중 최종아의 이유기에 대하여 물었던 바 6개월~1년미만이 56명(33.9%)으로 수위였다. (표 19)

표 19. 수유기간(이유기)

이 유 기	수(명)	백분율(%)
6개월 미만	16	9.7
6개월~1년미만	56	33.9
1년~1년 6개월 미만	39	23.6
1년 6개월~2년 미만	25	15.2
2년 이상	29	17.6
합 계	165	100.0

표 20. 젖 떼 이유

젖 떼 이 유	수 (명)	백분율(%)
젖이 부족해서	28	16.9
직장 때문에	5	3.3
모자 건강을 위해서	51	36.9
자연적으로	39	23.6
다음 애기 때문에	9	5.5
귀찮아서	15	9.1
기 타	8	4.8
합 계	165	100.0

5. 젖 떼 이유

최종아의 젖을 떼 165명의 부인에게 젖을 떼 이유를 물었던 바 모자건강을 위해서 이유기가 36.9%로 수위이며, 자연적으로 떼어졌다가 23.6%, 젖이 부족해서의

이유가 16.9%의 순위이다.(표 21)

6. 출생 및 사망신고의 장소에 관한 지식정도

응답부인 305명중 구청으로 정확한 장소를 답한 율은 197명으로 64.6%이며 동사무소로 답한 율이 25.2%나 된다.(표 21)

표 21. 출생 및 사망신고의 장소에 관한 지식정도

신고 장소	수 (명)	백분율 (%)
동 사 무 소	77	25.2
구 청	197	64.6
기 타	4	1.3
모 른 다	27	8.9
합 계	305	100.0

7. 막내아이의 출생신고이행

출산경험이 있는 부인 281명에게 막내 아이의 출생신고에 대해 질문한 결과 법정기일인 14일 이내에 출생신고한 비율은 29.2%에 불과했고 아직 신고하지않은 예도 11.0%나 된다.(표 22)

표 22. 막내아이의 출생신고 이행기간

기 간	수 (명)	백분율 (%)
아직 기간이 안됐다.	6	2.1
일주일 이내	56	19.9
2주일 이내	26	9.3
1달 이내	57	20.3
1달이후	95	33.8
등록했으나 언제했는지 모른다	10	3.6
등록 안했다.	31	11.0
합 계	281	100.0

C. 가족계획

1. 가족계획 찬성율

가족계획에 대한 찬반의 질문에 305명의 응답자중 290명(95.0%)이 찬성하고 있으며 반대는 5명(1.6%)으로 가족계획은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23)

2. 가족계획에 대한 지식정도

표 23. 가족계획 찬성율

가족계획에 대한 태도	수 (명)	백분율 (%)
찬 성	290	95.0
반 대	5	1.6
모르겠다	4	1.3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6	2.1
합 계	305	100.0

가족계획방법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97.7%가 들어본적이 있으며 전혀 들어본적이 없다는 사람은 7명으로 극소수에 달한다. 한편 가족계획방법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이 1가지이상의 방법을 알고 있으며 전혀 모르는 사람은 6.2%에 해당하는 19명이었다.(표 24)

표 24. 가족계획 방법에 대한 지식

알고 있는 가족 계획 방법수	수 (명)	백 분 율 (%)
전혀 모름	19	6.2
1~3가지	172	56.4
4~6	96	31.4
7~9	13	4.3
10가지 이상	5	1.6
합 계	305	100.0

3. 가족계획 실천정도

총응답자 305명중 현재 가족계획을 실천하고 있는 율은 35.4%이었다.

한편 실천하고 있는 가족계획의 방법종류로 현재 피임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보고한 108명의 부인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먹는 피임약 35.2%, 콘돔 18.5%, 루프 15.7%의 순위를 보이고 있다.(표 25)

4. 앞으로의 피임방법 사용여부

가족계획 찬성율 95.0%에 비하여 앞으로 피임방법을 사용하겠다고 말한 예는 75.1%이었으며 사용 안하겠다고 23.0%이었다.(표 26)

5. 자녀수

결혼기간별 현존 자녀수와 이상적인 자녀수 및 이상적인 남아수는 표 27과 같으며 평균 이상적인 자녀수는

표 25. 가족계획 실천 종류

방 법	수 (명)	백분율(%)
먹는 피임 약	38	35.2
자궁내 피임 장치	17	15.7
콘 동	20	18.5
정관 절제	11	10.3
난관 절제	5	4.6
재래식 방법	13	12.0
기 타	4	3.7
합 계	108	100.0

표 26. 앞으로 피임 방법 사용여부

사용 여부 의견	수 (명)	백 분 율(%)
사용 하겠다.	230	75.1
사용 안하겠다.	70	23.0
모르겠다.	5	1.9
합 계	305	100.0

표 27. 자 녀 수

결 혼 기 간	부인수	현 존 자녀수	이상적인 자녀수	이상적인 남아수
0 ~ 4년	103명	1.7명	2.8명	1.6명
5 ~ 9	88	2.4	3.2	1.9
10 ~ 14	54	3.1	3.2	2.0
15 ~ 19	23	3.6	3.3	2.0
20 ~ 24	21	4.5	3.4	2.0
25 ~ 29	12	5.2	3.6	2.2
30년이상	4	2.8	4.0	2.0
평 균	—	2.5	3.1	1.9

3.1이었다.

6. 유산, 사산횟수

305명의 응답부인들중 인공유산율 경험한 사람은 31.1%에 달하며 자연유산은 20.7%를 나타내었다. 사산은

표 28. 유산, 사산횟수

횟 수	인공유산	자연유산	사 산
없 음	210명 (68.9%)	242명 (79.3%)	295명 (96.8%)
1	35 (11.5)	42 (13.8)	9 (3.0)
2	24 (7.9)	12 (3.9)	1 (0.3)
3	18 (5.9)	3 (1.0)	—
4	6 (2.0)	3 (1.0)	—
5	8 (2.6)	2 (0.7)	—
6회 이상	4 (1.3)	—	—
무 응 답	—	1 (0.3)	—
합 계	305 (100.0)	305 (100.0)	305 (100.0)

표 29. 첫아이 갖는 이상적인 연령

년 령	수	백 분 율
~ 21세	3명	1.0%
22 ~ 23	74	24.3
24 ~ 25	184	60.3
26 ~ 27	27	8.9
28 ~ 29	2	0.7
30 이상	2	0.7
무 응 답	13	4.3
합 계	305	100.0

10명인 3.3%였다.(표 28)

7. 첫아이 갖는 이상적인 연령

첫아이를 24~25세에 가지는것이 이상적이라는 의견이 60.3%로 수위이며, 22~23세가 24.3%, 극소수이지만 21세전이나 30세이후가 적령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음을 볼 수 있다.(표 29)

V. 고 안

A. 연구 대상자의 특성

본 연구의 대상이 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연희아파트와 연희 A지구 B지구 아파트에 거주하는 유배우 가입부인 305명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비교적 출산능력이 큰 25~34세가 과반수인 63%를 차지하였으며

교육수준에 있어서는 중학교 학력이상 부인의 비율이 64.9%나 되어 높은 대도시 교육수준을 반영하고있다.

부인의 문화「미디어」 접촉상태는 모자보건사업을 비롯한 보건사업의 효과적인 계몽교육활동을 계획하고 추진하는데 중요한 내용이 되고있음은 주지의 사실인데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라디오나 신문이 잡지나 텔레비전에 비하여 훨씬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B. 임신과 출산

대상부인의 현재임신율은 16.4%이었는데, 이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를 대상으로 한 강²⁾의 12.8%와 비교하며 높은 율이다.

분만장소 및 개조인의 현황은 산전관리 못지않게 모성보건의 중요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부인중 출산을 경험한 281명의 막내아이 분만시 선택한 장소와 개조인을 보면 병의원 또는 조산원에서 분만된 경우가 48%, 가정분만은 52%로서 이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를 대상으로 한 강²⁾의 52%와 거의 동일하다.

부인의 특성별로 분만장소와 개조인의 선택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부인의 교육과 매스미디어 접촉 정도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출생성장지가 도시일수록 병원분만이 상승되고 있음이 증명되었다.

비 의료인에 의한 가정분만 및 단독분만에서 탯줄을 짜른 기구는 소독되지 않은 가위가(70.2%) 그리고 방포로서는 양회종이 및 비닐지가 (68.1%) 큰 비중을 차지하여 도시에서도 농촌이나 마찬가지로 가정분만이 비위생적임을 강력히 설명해주고 있다.

산후 휴식기간으로 한달 혹은 그 이상 휴식한 예가 (47.3%)이며 교육정도가 높을수록 길어지고 있으며 초유치리는 교육정도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보건교육이 요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C. 아동보건

예방접종 종류에 대한 지식은 6가지 모두 알고있는 부인이 20.3%, 1가지이상 알고있는 예는 93.2%이며 실시율은 1가지 이상을 실시한 경우가 85.2%로 나타났고 교육정도별 차이는 없었다. 최종아의 이환율은 48.1%이며 아플때 병원이용율은 41.5%로서 아직도 병원이용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육아상담을 하고 있는 부인이 23.5%이었으며 앞으로 이용할것인가의 의견에 대해서도 54.1%가 이용할 생각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 육아상담의 중요성과 안내에 대한 적극적인 제동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이유기는 6개월~1년미만이 33.9%로서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이 넘은후 이유를 시작하고 있어서

이유가 영유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는 부인의 비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D. 가족계획

가족계획이 대한 찬성율은 95%이었으며 93.8%가 적어도 한가지방법 이상을 알고있고 실천율은 35.4%로서 1970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¹⁾에서 조사했던 가족계획 실천율 27.8%보다 높았다. 가족계획 찬성율 95%에 비하여 앞으로 가족계획방법을 사용하겠다고 말한 예는 75.1%로서 찬성율과 행동결정에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 아이를 갖는 이상적인 연령을 24~25세라고 생각하는 의견이 수위이며 극소수이지만 30세 이후가 적령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랑도 있어 이에 대한 보건교육이 필요된다고 하겠다.

VI. 요 약

연세지역 아파트 주민의 모자보건과 가족계획에 대한 지식, 태도와 실천을 파악하기 위하여 1970년 11월24일 부터 12월 30일까지 305명의 유배우가임부인을 대상으로 조사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A. 임신과 출산

1. 현 임신율 16.4%

2. 분만장소

출산경험이 있는 281명에 대한 최종아의 분만중 48.0%가 의사 또는 조산원이 개조 하였고 그 나머지 52.0%는 가정분만이었다.

교육정도, 매스미디어 접촉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도시출생성장일수록 병원 또는 조산원 분만이 높았다.

3. 분만시 방포 사용 종류

가정분만 141예중 세멘트 포대와 비닐을 깬 경우가 합해서 50%이었고 아무것도 깔지 않고 분만한 경우도 4예가 있었다.

4. 제대 절단 용구와 소독

가정분만 141예중 70.2%가 가위를 사용했고 소독해서 사용한 예는 불과 24.1%이었다.

5. 산후 휴식기간

산후 1달 혹은 1달이상 휴식한 예가 47.3%이었고 교육정도가 높아짐에 따라 길어지고 있다.

6. 초유치리

초유를 애기에게 먹인예가 52.4%이었고 교육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7. 산전 산후의 금기 음식

42.9%가 산전 산후에 먹어서는 안될 음식이 있다는

그릇된 지식을 갖고 있다.

B. 아동 보건

1. 예방접종에 관한 지식과 실천

어린이 예방접종 6가지 모두 알고있는 부인은 20.3%이며 93.2%가 1가지 이상 알고있었다.

1가지 이상 실시한 경우는 85.2%이었고 교육정도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2. 최종아의 이환과 치료

48.1%가 아픈 일이 있었으며 그중 병원 이용은 41.5%이었다.

3. 육아 상담

76.5%가 상담한 일이 없었으며 세브란스 병원 육아 지도회 이용율은 13.2%의 저율을 보였고 앞으로의 육아지도회 이용할 생각은 54.1%가 생각 없다고 하였다.

4. 수 유

최종아의 이유기간은 6개월~1년미만이 33.9%로 수위이며 젖 떼는 이유는 모자 보건을 위해서가 수위였다.

5. 출생 및 사망신고장소에 대한 지식과 실천

구청으로 답한 옳은 답은 64.6%였고 14일 이내 출생 신고한 비율은 29.2%에 한 하였다.

C. 가족계획에 대한 지식, 태도, 실천정도

가족계획 찬성율은 95.0%의 고율을 보이고 있고, 97.7%가 1가지 이상의 방법을 알고 있었으나 가족계획 실천율은 35.4%이었다. 첫아이 갖는 이상적인 연령은 24~25세가 수위였다.

D. 자녀수

이상적인 평균 자녀수는 3.1명이며 인공유산 경험자는 31.1%이다.

본 논문을 완성함에 있어서 간곡하신 지도와 교열의 수고를 베풀어 주신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 김일순 선생님과 연세간호대학 김모임 선생님께 충심으로 감사료를 드린다.

참 고 문 헌

1. 권이혁, 김태룡, 박형중, 강길원 : 도시지역의 모자 보건 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9, 1969.
2. 강길원, 김인달, 권이혁 : 산전관리 및 분만환경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보건대학원, 10, 1970.
3. Yang, Jae Mo and Kim, Myung Ho. : *A Basic Health Survey of the Yonsei Community Health Service Area, Seoul, The Kor. J. Prev. Med.*, 1(1):25~36, 1968.
4. Robinson, J.C. and Song, S.W. : *Urban Maternal Health care, Dept of Ob & Gyn., College of Medicine, Yonsic University, 1969.*
5. Park C.M. : *Maternal and Child Health, J. of Kor. Med. Ass.*, 11(9): 691-6, 1968.

